4. 농가 보유 암소 중 우량 암소 선발 방법은?

농가에서 암송아지가 태어나면 이 중 몇 마리를 도태하고 몇 마리를 번식우로 활용하는가를 살펴보면 도태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농가는 아마도 생존하는 모든 암송아지를 육성하여 번식우로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선발률은 100%(도태율 0%)로 암소에 대한 선발은 실시하지 않은 것이 된다.

유전적인 개량량은 영구적으로 해당 축군에 누적되어 작용하므로 일단 달성된 개량량은 개량 방향이 바뀌기 전에는 그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량 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개량 방향에 맞추어 가축을 도입하거나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어떠한 형질을 개량할 것인가?

개량하고자 하는 형질(수태율, 번식 간격, 12개월령 체중, 근내지방도 등과 같은 개체별 특성을 말함)은 경제적으로 중요하며 측정이 가능하고, 개체 간 차이가 있어야 한다. 목표설정은 가능한 2~3개 형질 등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짧은 시간에 개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나. 개량 목표 설정

① 경제적으로 중요한 형질을 나열해 본다.
② 시장이나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나열한다.
③ 실현가능한 나의 미래 생산 목표를 나열한다.
(예시) 56일 수태율 90%, 자연분만 95%, 분만간격 12개월 등
④ 축군의 현재 능력을 나열해 본다.
⑤ 각 형질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개량 목표를 나열한다.

다. 적절한 암소선발 방법의 선택

① 교배 전 선발

교배 전 선발은 암소가 번식에 들어가기 전에 도태를 하여 능력이 낮은 암소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될 기회를 없앰으로써 축군을 개량해 나가는 것이다. 미경산우의 경우 개체의 능력(성질, 외모/체형)에 따른 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발을

하려면 암송아지에 대한 능력검정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는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배 전 암소의 유전능력 평가가 가능하여 조기 선발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교배 후 선발

주로 수태율과 같이 번식능력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되 암소가 출산한 송아지의 도축성적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암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번식성적으로는 수태율, 분만 간격(공태일) 등 번식능력과 송아지 육성능력(송아지의 포유거부 여부, 육성률, 이유 시 체중)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체형, 성질(난폭, 겁이 많은 돌출행동) 등이 있다. 이러한 형질을 조사하여 선발(도태)에 활용하여야 우량 암소를 선발 할 수 있다.

(한우연구소 / 033-330-0686)